

“어! 내비 도착시간이 이상하네”

현대·기아차, 일부차량에 오류

서비스센터선 “본사 지침 없지만 센터 찾은 고객들에 서비스 제공”

현대·기아차의 순정 맵핑형 내비게이션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내비게이션 오류로 날짜와 시간이 수신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본사에서 이같은 상황에 따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일부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지난 17일부터 날짜와 시간이 수신되지 않아 서비스센터를 찾는 소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은 정수석 부회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고객의 쓴

소리를 경청하고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의 한 정비사는 “지난 17일부터 이같은 문제로 센터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며 “아직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는 상태지만 센터를 찾은 고객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비게이션 오류로 발생하는 현상은 ▲내비게이션 도착시간 오류 ▲날짜 오류 ▲시계 사라짐 등이다.

현대·기아차 차량은 GPS를 통해 운전자 위치를 확인해 시간을 수신하고 내비게이션을 실행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차량들은 날짜와 시간을 수신하지 못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소비자들은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오류 해결을 위해 GPS ‘오프’(off) 후 ‘온’(on)으로 설정하기 → 리셋하기 → 업데이트하기 순서로 진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2018년형 싼타페 차량을 구매한 김모씨는 “지난 주말에 가족과 여행을 가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설정한 뒤 도착시간을 확인하고 황당했다”며 “현대·기아차에서 이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내비게이션 오류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스티븐 왕 사오미 동아시아 마케팅 총괄 매니저가 20일 서울 DDP에서 열린 사오미 신제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샤오미, 3만원대 ‘미 스마트밴드4’ 공개

화면 39.9% 커지고 풀컬러 탑재 무선 이어폰, 금속 캐리어도 첫 선

샤오미가 가성비를 앞세운 3만원대 스포츠 밴드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 샤오미는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 플라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제품 4종 공개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을 발표했다.

미(Mi) 스마트 밴드는 샤오미가 2014년 처음 내놓은 제품으로 터치스크린을 통해 운동 기록뿐만 아니라 메시지·앱 알림·날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기기다.

이날 샤오미가 공개한 미 스마트 밴드4 출고가는 31900원이다. 샤오미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핏과 핏비트의 인스파이어 등 타사의 스포츠 밴드의 가격과 성능을 언급하며 자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강조했다. 갤럭시 핏과 핏비트 인스파이어의 출고가는 각각 11만8800원, 10만9000원이다. 현장에서는 가격 공개와 동시에 저렴한 가격에 놀라는 탄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스티븐 왕 사오미 동아시아 총괄매니저는 “샤오미가 시장에 선보이는 모든 제품들은 순수익률 5%를 넘지 않는다”며 “샤오미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최적의 가격에 제공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대량 생산을 통해 샤오미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스마트 밴드4는 전작보다 화면이



미 스마트밴드 4. /샤오미

39.9% 커졌으며 풀컬러 AMOLED를 탑재했다. 1600만 가지가 넘는 색을 표시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한 6축의 센서는 보다 정확한 운동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수영 트래킹 기능이 추가됐다.

예약판매는 20일부터 진행되며 정식 판매일은 오는 23일이다. 쿠팡을 통해 판매하며 샤오미는 향후 판매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샤오미는 출고가 39900원의 무선 이어폰 ‘에어닷 청춘판’, 19만9000원의 ‘금속 캐리어’, 69900원의 ‘폴리카보네이트 캐리어’도 함께 공개했다. 이어폰 소개에서도 샤오미는 삼성전자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가 15만9500원인데 기능은 비슷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에어닷 청춘판은 오는 23일부터 쿠팡과 위메프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선 샤오미 동아시아 총괄매니저 스티븐 왕이 처음으로 국내 언론에 나서며 한국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샤오미는 최근 한국 시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총괄매니저를 선임한 바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현대重 노조, 오늘 금속노조 파업 동참

현대중공업, 2분기 영업손실에 목표수주 실적 달성률 27% 그쳐 파업결정에 생산성 차질 등 우려 노조, 조합원 1400명 징계 대응

현대중공업 노조가 21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해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2분기 영업손실과 함께 올해 목표 수주 실적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 노조의 이번 파업결정이 현대중공업의 앞날에 득이 될지 득이 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전 조합원 파업을 결정했다.

또 28일에는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

선사 노조들이 모인 ‘조선업종 노동연대’가 7시간 파업과 함께 서울 광화문 상경 투쟁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성동조선, STX조선, 한진중공업 노조가 참여한다.

노조가 올해 임금 교섭과 관련해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등으로 파업권을 획득한 뒤 벌이는 첫 파업이다.

현대중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2만3526원(6.68%) 인상, 성과급 현대중공업지주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 지급, 연차별 호봉승급분 격차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에서는 임단협과 관련해 사측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본급 인상은 사실상 어려우

며 이와 관련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노조는 법인분할(물적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조합원 1400여 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파업 동참을 결정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 주주총회 당시 접거농성을 벌인 노조원을 대상으로 4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조합원은 생산 차질 유발, 파업 상습 참가 등의 이유로 징계, 감봉, 출근 금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 결정과 관련해 생산성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재 48억달러(잠정치)를 수주해 올해 수주목표(178억달러)의 27%를 달성하는데 그쳤다. 또한 2분기 실적에서는 해양플랜트부문 부진으로 571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정연우 기자 ywi964@

올 신규벤처투자 2.4조... 7개월째 ‘역대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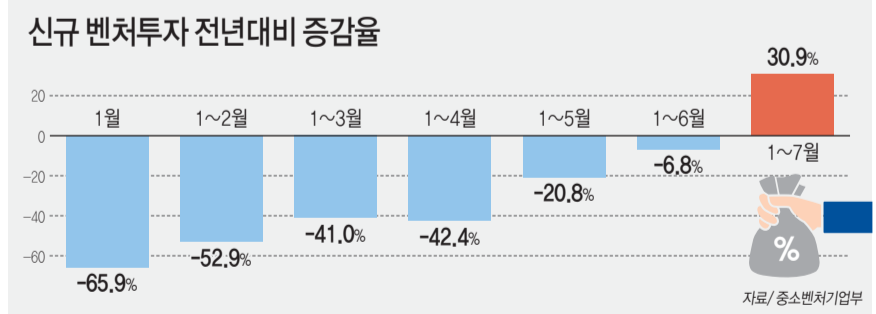
중기벤처부-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펀드 결성액 2조, 역대최고 기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올해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벤처투자가 2조3739억원, 벤처펀드 결성액이 2조556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7월 신규 벤처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증가한 것으로, 올해 들어 7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중기부는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가 지난해보다 16.3% 증가한 데 이어 7월 기준으로 7.4%포인트(p) 더 높아지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올해 전체 벤처투자 목표치인 4조원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벤처펀드 결성액은 7월 한 달 동안 7316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9%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월 평균 결성액 2196억원의 3.3배에 달하



는 것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벤처펀드 결성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하반기 모태펀드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출자를 확대하면 벤처펀드 결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부는 최근 벤처펀드 결성액이 증가한 배경에 대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제2 벤처 붐과 함께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벤처펀드

결성액 2조556억원 중에서는 민간 출자액이 1조5644억원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이는 공공정책기관이 출자한 4912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해 1~7월 민간 출자액 비중 62.9%와 비교하면 13.2%p 높아졌다.

특히 개인의 출자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벤처펀드 출자액 중 개인 출자액은 1519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개인 출자액 130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김승호 기자 bada@

“셀프 체크인으로 대기시간 줄이세요”

아시아나항공, 인천국제공항서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 운영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최초로 전용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을 운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C존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전용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 오픈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자동수하물위탁 서비스는 승객들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체크인이나 C존에 배치된 셀프체크인 기기를 통해 탑승수속을 마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수하물위탁 기기에 탑승권을 인식한 후 수하물 태그를 발급받아 직원을 거치지 않고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위탁하는 서비스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C존에 하이브리드

형 셀프백드롭 기기 28대를 배치해,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을 운영한다. 실제로는 지난해 말 14대의 셀프백드롭 기기를 배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으며 8월 14대를 추가해 본격적으로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을 오픈한다.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에 설치된 셀프백드롭 기기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하이브리드 형태의 기기로 필요에 따라 유인카운터로 전환이 가능해, 수속 대기 현황에 따라 유인 혹은 무인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을 이용하면 셀프체크인을 이용한 고객들이 유인카운터에서 수하물을 맡기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고객들이 보다 편하고 여유롭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연우 기자